

황당한 계산법

김대리가 부장에게 하루 쉬겠다는 휴가원을 냈다.

부장이 말한다.

"김대리. 1년은 365 일이지? 하루는 24 시간이고.

그 중 자네 근무시간은 8 시간이지?

하루의 3분의 1을 근무하니까,

결국 1년에 자네가 일하는 날은

122일 밖에 안된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52일의 일요일이 있고,

반만 일하는 토요일을 26일로 치면 겨우 44일 남아.

그걸 자네가 다 일하나?

밥 먹는 시간에 화장실 출입하는 시간에

담배피는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에 최소한 3시간은 빠진다구.

그걸 다 빼면 자네가 일하는 시간은

27일 이라는 소리지.

게다가 자네 여름휴가는 10일이지?

그럼 17일이 남는군.

그중에서 신정, 구정, 식목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추석, 크리스마스,

그리고 회사 창립기념일까지 휴일이 총 16일이야.

결국 자네가 제대로 일하는 날은

1년에 딱 하루라 이거야.

그런데 그 하루마저 휴가원을 내면,

아예 놀고 먹겠다는 건가?

자네도 입이 있으면 대답 좀 해보게."

荒唐な計算法

金代理が部長に一日休みますと休暇届けを出しました。

部長が言う。

“金代理！1年は365日だよな？一日は24時間だな？
その中で君の勤務時間は8時間だな？
一日の3分の1を勤務するから
結局、1年に君が仕事する日は
122日しかない話だよな！
その中で52日間は日曜日があって
半分仕事をする土曜日を26日だとするとやっと44日残る。

それを君が全部仕事するのか！
ご飯食べる時間にトイレ出入りする時間に
タバコ吸う時間まで合わせると
一日に少なくとも3時間は引かれる。
それを全部引けば君が働く時間は
27日と言うことになるんだよな！

それに君の夏休みは10日間だよな！
それでは17日残るな！

その中で正月休み・お盆休み・・・クリスマス
会社創立記念日までの休日が全て16日間だよな！

結局お前がまともに働く日は
1年にぴったり一日だと言うことだ。
ところでその一日さえ休暇届出を出せば
てんからむだ飯を食うということか？
お前も口があれば返事して見て！

그러자 김대리가 억울한 표정으로 말한다.

"부장님, 전 너무 피곤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죠.

우리 나라의 4,500 만 인구 중에 2,500 만은
노인이나 실업자 아니면 퇴직자들이죠.

그럼 남은 인원은 2,000 만명 입니다.

그 중에서 1,600 만은 학생이거나 어린이들이죠.

그럼 400 만이 남습니다.

현재 100 만명이 국방을 위해 군대에 있거나
방위근무 중이고, 100 만명은 국가공무원 입니다.

그럼 200 만명이 남는 거죠?

또 180 만명이 정치를 하거나

지자체 공무원들이니 남는건 20 만명,

그중에 188,000 명이 병원에 누워 있으니

겨우 12,000 명이 남죠.

그리고 11,998 명이 감옥에 가 있으니

결국 두 명이 남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바로 부장님과 저!

그런데 부장님은 매일 제가 올린 보고서에
결재만 하고 있으니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저 하나뿐이라구요.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겠죠 —"—;;

すると金代理が悔しい表情で言う。

“部長！私はとても疲れています。

なぜか理由を申し上げます。

我が国の4,500万人口の中に2,500万は
年寄りや失業者ではなければ退職者たちです。
それでは残った人員は2,000万人です。

その中で1,600万人は学生や子供たちです。

それでは400万が残ります。

現在100万人が国防のために軍隊にいるか
防衛勤務の中で、100万人は国家公務員です。
それでは200万人が残るのですか？

又、180万人が政治をするとか

地方自治体公務員たちだから残るのは20万名、
その中に188,000人が病院で横になっているから
わずか12,000人が残ります。

そして11,998人が監獄に行っているから
結局二人が残って仕事をしているという話です。

まさに部長と私！

ところで、部長は毎日私があげた報告書に
決裁ばかりしているから実際に働く人は
大韓民国でただ一人、私のみです。

私がどれほど疲れるのか分かりますかー”ー”;;